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소식



### § 연구원 소식

- 발굴조사 현장
- 자문위원회 개최
- 2011년 5~8월 연구원 발간 보고서
- 2011년 5~8월 연구원 발간 학술지
- 연구원 해외연수
- 연구원 교육 및 세미나
- 연구원 행사

### § 이달의 발굴현장

- 김해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 김해 마현산성
- 김해 양동산성

### § 역사·고고학 소식

김해 마현산성 서문지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본원 630-81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6-20 | TEL. (055)265-9150~2 | FAX. (055)265-9154



## § 연구원 소식 1

### • 발굴조사 현장

-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2009. 06. 16 ~ 2011. 05. 11
-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양산 용당리 유물산포지Ⅲ 유적(I-A지구) E구간 유적 발굴조사 2011. 01. 10 ~ 2011. 05. 20
- 고성 송학동 고분군 발굴조사 2011. 01. 06 ~ 2011. 05. 24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건설구간내(10공구) 유적 시굴조사 2011. 04. 08 ~ 2011. 06. 01
- 거제 수월동 산 39-10번지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2011. 05. 30 ~ 2011. 06. 10
- 고속국도 제10, 104호선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내 유적 발굴조사 2011. 03. 09 ~ 2011. 08. 03
- 김해 마현산성 서문지 발굴조사 2011. 07. 11 ~ 2011. 08. 05
- 김해 양동산성 동문지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2011. 07. 15 ~ 2011. 09. 08
- 하동-평사리 국도 건설구간내 흥룡리 유물산포지Ⅱ 문화재 발굴조사 2011. 08. 01 ~ 2011. 11. 08
-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구간내 유적 시굴조사 2011. 07. 14 ~ 2011. 12. 20
- 울산 송정 C-1지구 택지개발사업 발굴조사 2011. 08. 18 ~ 2012. 06. 22

### • 자문위원회 개최

- 2011. 05. 04 : 고성 송학동 고분 발굴조사(2차)
- 2011. 06. 09 : 거제 수월동 산 39-10번지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 2011. 06. 23 : 고속국도 제10, 104호선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내 유적 발굴조사
- 2011. 08. 01 : 김해 마현산성 서문지 발굴조사
- 2011. 08. 10 :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시굴조사

\* 참고 : 이밖에 타기관 현장설명회 일정 및 조사현황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http://www.kcpia.or.kr/>)를 참고



## § 연구원 소식 2

### • 2011년 5~8월 연구원 발간 보고서

NO	보고서명	발간일자	주요내용
50	鎮海 自隱 採石遺蹟	2011. 06	<생활유구> 삼국시대-누자식건물 40동, 주거지 2기, 집석 8기, 수혈 13기, 우물 2기, 구1기, 주혈군 고려·조선시대-건물지 4동, 주거지 3기, 수혈 8기, 매남유구 1기, 주혈군 <분묘유구> 고려·조선시대-분묘 1기
51	巨濟 屯德基城 東門·建物址 金海 古邑城Ⅱ 隆	2011. 06	<성곽> 삼국~고려시대-동문지, 건물지 4동 수혈 1기, 구 1기 고려시대-황, 목주열
52	鎮海 馬川洞 遺蹟	2011. 08	<생활유구> 청동기시대-수혈주거지 1동 <분묘유구> 청동기~삼국시대-목관묘 1기, 석곽묘 49기 석관묘 1기, 위석식목곽묘 1기, 옹관묘 5기
53	鎮海 頭洞 遺蹟	2011. 08	<생활유구> 고려시대-기와가마 2기 <분묘유구> 청동기시대-석관묘 1기 삼국시대-석실묘 1기 고려~조선시대-분묘 56기
54	金海 荷溪里 製鐵遺蹟	2011. 08	<생활유구> 삼국시대-주거지 3동, 구 4기, 주혈군 2개소 조선시대-수혈 5기, 구 1기, 주혈군 1개소 <제철유구> 삼국시대-제련로 1기, 수혈 21기

### • 2011년 5~8월 연구원 발간 학술지

NO	학술지명	발간일자	게재논문
10	동아문화 10호	20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지역 무문토기 양식의 시공간적 의미-김현식 -금호강·형산강·태화강 유역 자료를 중심으로-</li> <li>• 소가야 대형 봉토고분 조성방법의 초보적 연구-박미정·조명래·정원일</li> <li>• 사천지역 조선시대 분묘 연구-김재홍 -사천 응현유적을 중심으로-</li> </ul>





## § 연구원 소식 3

### • 연구원 해외연수 및 답사

#### 1. 해외 어학연수

##### 1) 중국

- (1) 일자 : 2011년 1월 1일~1월 30일, 2011년 3월 19일~6월 4일  
(2) 장소 : 중국 북경  
(2) 인원 : 지진영 사무국장, 김판석 과장, 정용날 연구원

##### 2) 중국

- (1) 일자 : 2011년 6월 13일~9월 3일  
(2) 장소 : 중국 북경  
(3) 인원 : 지진영 사무국장, 정원일 연구원, 정서안 연구원

##### 3) 필리핀

- (1) 일자 : 2011년 4월 9일~7월 4일  
(2) 장소 : 필리핀 마닐라  
(3) 인원 : 김민수 연구원, 김진 연구원

### • 연구원 교육 및 세미나

#### 1) 한문협 고고학과 자연과학분석 교육

- (1) 일자 : 2011년 5월 12일~13일  
(2) 장소 : 한문협 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3) 인원 : 정현호 부팀장

#### 5) 한문협 체육대회

- (1) 일자 : 2011년 6월 18일  
(2) 장소 : 금산 종합운동장  
(3) 신용민 원장 외 32명

#### 2) 한문협 회계담당자 교육

- (1) 일자 : 2011년 5월 19일~21일  
(2) 장소 : 제주도 네이버후드호텔  
(3) 인원 : 조덕제 팀장

#### 6)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사용자 교육

- (1) 일자 : 2011년 6월 28일  
(2) 장소 : 국립대구박물관  
(3) 인원 : 김정규 부팀장

#### 3) 한문협 수혈주거지 조사방법 교육

- (1) 일자 : 2011년 5월 25일~27일  
(2) 장소 : 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3) 인원 : 이영원 연구원

#### 7) 문화재청 출토유물관리시스템 관련 세미나

- (1) 일자 : 2011년 7월 13일  
(2) 장소 :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3) 인원 : 이현정 부팀장

#### 4) 한문협 유적사례 발표회

- (1) 일자 : 2011년 6월 17일  
(2)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3) 인원 : 배덕환 단장, 실종훈 팀장, 구형모 부팀장

#### 8) 한문협 발굴조사 기초교육

- (1) 일자 : 2011년 7월 26일~29일  
(2) 장소 : 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3) 인원 : 김진 연구원

### • 연구원 행사

#### 1) 단체야구관람(롯데 vs LG)

- (1) 일자 : 2011년 4월 29일  
(2) 장소 : 사직야구장  
(3) 인원 : 연구원 전체

#### 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제교류 협정 3년 연장

- (1) 일자 : 2009년 5월 25일~2012년 5월 24일  
2012년 5월 25일~2015년 5월 24일(연장)





## § 이달의 발굴현장1

### • 김해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김해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신문리 일원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김해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구간 중 용산유물산포지에 해당한다.



도판1.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전경(항공사진)

토층조사 결과, 5개층에 유구가 중층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동일 문화층 내에서도 중복이 심하고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발굴조사는 기준토층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역의 북쪽과 남쪽의 자연곡부 2개소에 소토, 목坦 등 인위적인 매립층이 관찰되며 이를 각각 중층구간1, 남쪽을 중층구간2로 명명하여 상층 유구부터 순차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노출된 유구는 수혈주거지 18동, 수혈 121기, 구 8기, 누자식건물 2동, 주혈군 10개소, 혼토파각층 1개소이며 중층구간1에는 5개층이 잔존하는데, 최상층인 1층에는 수혈과 주혈만 유존하고, 그 아래의 4~5층에는 수혈주거지, 수혈, 주혈, 구 등의 유구가 분포한다. 중층구간2에도 5개층이 조사되었는데, 1층과 2층에서 중복이 심한 수혈주거지, 수혈과 주혈이 다수 노출되었다.



도판 2.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4-3호 주거지 전경



도판 3.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2-32호 수혈 전경

신문리 용산생활유적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수혈주거지, 누자식건물, 수혈, 목책, 주혈군, 구상유구 등이 총 5개 층에 걸쳐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층마다 다양한 성격의 생활유구가 7~8기 이상이 중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층구간1의 수혈주거지 내부에는 벽구, 벽주, 단이 설치되었으나 중층구간2의 수혈주거지 내부에는 벽구는 없고 주혈과 노지만 설치되어 내부시설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층구간1·2에 조성된 수혈주거지의 용도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일 유적 내에서의 공간 분할과 역할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문화층(유구설치층)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하층의 유구가 조사된다면 더욱 명확하게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 4. 신문리 용산 생활유적 출토유물

유물은 1·2층의 유구 내부에서 4세기대로 편년되는 각종 생활토기 이외에 통형기대편, 소형기대편, 광구소호편, 고배편(외 절구연고배 등) 등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 다양 출토되었다. 특히, 이제까지 금관가야 토기편년은 주로 고분군 출토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번 조사를 통해 생활유적 토기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금관가야 토기편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달의 발굴현장 2

### • 김해 마현산성 서문지

마현산성이 위치한 김해시 생림면 봉립리 일대는 북서쪽의 험준한 산지에 해당하는데, 서쪽은 작악산(377.8m), 동쪽은 무척산(700m)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등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육로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도판 1. 마현산성 서문지 외벽부 전경(서→동)



도판 2. 마현산성 서문지 내벽부 전경(북동→남서)

마현산성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성벽을 초축한 이후, 麗末鮮初에 문지를 개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국시대 초축 성벽은 날동-북서의 지형을 따라 형성된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굴착하여 경지층을 조성한 후 기단을 조성하였다. 서문지의 초축 외벽부는 '바른층쌓기', 내벽부는 '허튼층쌓기' 하였으며 서문지는 초축 성벽이 붕괴된 이후, 이를 정리하고 '허튼층쌓기'하여 성벽과 양 측벽을 축조한 다음, 계단을 갖춘 통로부를 조성하였다. 내측벽부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문루초석을 배치하였다.

유물의 특징상, 토기류는 삼국시대, 자기류는 여말선초로 편년 가능하여 마현산성 초축시기와 수축시기를 추정 가능하다.

그 외 서문지의 내측에 위치하는 진수지 주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시대 도기편 등이 수습되므로 향후 복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수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마현산성의 경체성이 보다 확실히 규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주변 삼국시대 산성 및 보루 등 관방유적들과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마현산성은 밀양-삼랑진-김해로 연결되는 수로와 육로상의 교통 요충지에 배치된 관매성 또는 차단성으로서 김해지역 성곽연구에 중요한 학술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달의 발굴현장 3

### • 김해 양동산성 동문지

양동산성은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9-1번지 일원의 해발 333m의 정상부를 두르고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1988년 도기념물 제9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도판 1. 양동산성 동문지 외벽부 조사후 전경(동→서)



도판 2. 양동산성 동문지 내벽부 조사후 전경(서→동)

동문지 북쪽 측벽에 설치된 수구 역시 일반적인 산성에서 보이는 수구의 위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체성내부로 연결되어 내벽에 입수구가 잔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적실석을 제거하여 내벽부 조사를 병행하였지만 날-북방향으로 약 150cm 길이만 유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구는 수축시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동산성 주변은 산지로 둘려 있으며 남쪽은 고김해만(지금의 김해평야) 일대와 분산성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창원·진례 방면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역사적 정황과 연결시켜 볼 때, 매우 탁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번 동문지 발굴조사 결과, 동문지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북쪽 측벽 및 외벽의 'ㄱ'자형 석축의 구축양상으로 볼 때, 초축 이후 최소 1회 이상의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초축문자는 외측벽부가 호형으로 꺾이는 曲牆 구조로 2008년 시굴조사된 북문지와 동일한 구조이다. 초축문지의 측벽간 너비는 430cm이며 수축시에는 약 80cm 정도 축소시켜 측벽간 너비는 약 350cm이다.

동문지의 개구부 외에 문지의 외벽부는 평면 'ㄱ'자상 석축이 시설되었는데, 형태만 보면 마치 조선시대 읍성의 옹성과 같은 구조로 현재까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이다. 그러나 초축시기의 현문식 문지 외벽부에 석축을 멋대고 내부는 점토를 충청한 양상 등으로 보아 출입이 불편한 현문식 문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축한 등성시설로 추정된다.



도판 3. 양동산성 동문지 북쪽 측벽 수구전경



## § 역사 · 고고학 소식

### • '1500년 잠 깬 고구려 철갑옷', '온전한 발굴 남-북-중 첫 사례'

(『동아일보』, 『중앙일보』 2011. 05. 18)

- 경기 연천군 고구려 보루유적을 발굴조사 중인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일진강변 무등리 제2보루에서 고구려 무사의 철비늘갑옷 출토.
- 작은 철제조각을 가죽끈으로 이어 만든 '찰갑(扎甲)' 형태로 온전한 모습이 발굴되기는 한국과 북한, 중국을 통틀어 최초임.
- 가야군의 '판갑'과는 다른 고구려군의 철갑옷은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짐작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온전한 실물을 확인하게 되어 고대사 연구와 삼국시대 전쟁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

### • 조개 장신구를 한 신석기시대 인골 출토 "계급사회 증거" (『부산일보』 2011. 06. 01)

- 한국문화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실시 중인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사업부지에서 주목할 만한 인골 2기 출토.
- 인골 2기 중 장년으로 추정되는 인골은 오른팔에 3개, 원팔에 5개의 조개팔찌를 차고 20여 개의 조개를 매단 조개 목걸이도 착용. 조개목걸이와 양팔에 조개장신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유년으로 추정되는 인골의 가슴에 10개의 대형 피조개 껌데기를 장식한 것 또한 국내에선 첫 사례임.
- 조개껌데기는 당시 교역품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이므로 인골 2기 모두 상당한 경제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
- 이번 발굴을 통해 가덕도 유적지가 계급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됨.

### • 가야의 오리모양토기 · 뿔잔 김해서 국내 첫 동반 출토

(『부산일보』 2011. 06. 15, 『경남도민일보』 2011. 06. 16)

- 동서문화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김해시 주촌면 망먹리고분군에서 가야의 오리모양토기와 뿔잔이 국내 최초로 동발 출토.
- 이번에 발굴된 오리모양토기는 오리 머리 위에 사발으로 추정되는 토우가 엎드려 있으며,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어 뿔잔을 꽂은 형태. 동일 무덤에서 한 세트로 출토된 것은 국내 첫 사례임.
- 말머리 장식 뿔잔(보물 제598호)에 비견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청동기시대 분묘 10기, 삼한·삼국시대 목관묘 4기, 목곽묘 320기, 토광묘 29기, 옹관묘 37기 등과 4천여 점의 유물도 발굴됨.

### •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불러주세요 (『경남도민일보』 2011. 07. 25)

- 문화재청은 경상을 경계로 같은 산자락에 걸쳐 있는 함안 도항리고분군과 함안 말산리고분군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명칭을 통합함.

